

謹賀新年

상호협력과 이해의 해 되길



최 호 열 포천신문 발행인

다 사 다 난 했던 병술년을 뒤로 하고 2007년 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福을 부르는 '돼지해'에 포천신문 독자와 여러분과 함께 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해년 새해는 600년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 해'입니다. 지난해 입춘이 두 번들어 결혼하면 잘 산다고 해서 결혼 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쌍춘년에 이어 올해는 아이를 낳으면 재물복이 넘치고 대강한다고 하여 자녀를 출산하려는 예비 산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병술년 한해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불안정 속에 우리는 불안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포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과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칠수록 우리에게도 더 큰 용기와 지혜는 물론 더욱 크게 솟아 오르는 지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150만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포함된 포천도시기본계획이 지난해 승인받아 포천발전의 첫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권의 변화가 포천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리지역의 변화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상호간에 협력하고 이해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과거 소외된 지역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로 반복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새해는 600년만에 찾아오는 슈퍼돼지 해입니다. 돼지는 福을 뜻한다고 합니다. 돼지는 개인의 건강과 재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크게 번창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2007년 정해년 한해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해



양 주 선 포천신문 지문위원장

2007년을 승리케 하는 키워드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는 네트워킹(networking)關係連結입니다. 현대는 될 수 있으면 링크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서 많이 알아야만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연결시키고, 인적 자원을 연결시켜야 성공합니다. 맹귀우목(盲龜遇木) 논변 거북이 우연히 뜬 나무를 붙잡았다는 뜻으로, 관계연결을 잘 하다보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연히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움직임(多動) 것입니다. 靜(靜)이 아니라 머물지 않고 많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뛰면서 사는 실천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두고 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丁亥年에는 꽃대를 향해 움직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해 갑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16장19절 포천 신문을 사랑하시고 애독하시는 독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을 미련 없이 보내고 희망의 丁亥년을 맞아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丁亥年 일년동안을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려면 세상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知世知己란 말을 만들어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자기를 알면 정해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우리 함께 승리케 하는 키워드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는 네트워킹(networking)關係連結입니다. 현대는 될 수 있으면 링크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서 많이 알아야만 성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연결시키고, 인적 자원을 연결시켜야 성공합니다. 맹귀우목(盲龜遇木) 논변 거북이 우연히 뜬 나무를 붙잡았다는 뜻으로, 관계연결을 잘 하다보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연히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움직임(多動) 것입니다. 靜(靜)이 아니라 머물지 않고 많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뛰면서 사는 실천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두고 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丁亥年에는 꽃대를 향해 움직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해 갑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16장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길 고대합니다.

화합지수 높여 포천신문 발전도모



윤 이 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다 사 다 난 했던 2006년을 보내고 새해 2007년의 밝은 태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연초에 세웠던 꿈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더라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새해 밝은 태양과 약속하세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게 더불어 더욱 강력한 매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의 투자와 노력에 비하

면 운영위원회의 지원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신문의 그레이드를 높여 가는 열정적인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한 직원과 각 위원회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운영위원회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위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방문을 시도하여 추진해 미처 다하지 못한 위원들의 업적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모두 방문하여 함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포천신문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신문, 가장 정직한 신문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천신문을 사랑하는 독자들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포천신문을 구독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발판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황금돼지 안으세요”



조 정 선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포천신문 가족과 조사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정선입니다. 2007년 새해는 600년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모두가 황금돼지를 안고 싶은 마음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이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가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제도를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신문 또한 기업하기 좋은 그래서 행복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조사위원 여러분들도 포천신문 가족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수집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연대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포천에서는 기업체가 마음놓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2006년 말에 발표된 신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부진했던 요소는 다 떨쳐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에 도전하여 성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해보다 새해에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없이 행복한 새해되시길



임 경 선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장 임경선입니다. 주부 명예기자단이 창단된 지 어느새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부들의 시각에서 포천사회를 조망하고 지면에 반영하기 20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단 명예기자들의 활동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와 가정에서 살림을 주로 하고 있는 주부들간의 시각으로 바라본 포천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살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공유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앞장 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

를 통해 답지되는 성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미래의 꿈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2007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결국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이라면 그게 바로 행복이겠지요. 포천신문은 이같은 행복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안내와 길잡이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생활정보를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포천신문을 세상에 선보인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들에게 2007년에는 더욱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포천신문을 사랑하는 독자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보다 멋진 주부명예기자단이 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부탁해



양 근 원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장

이름 안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19살의 나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힘들게 행하고는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할텐데.. 하는 생각으로 새해를 부담스러워 하던 저는, 어느 순간 아 이렇게 즐거운 감정을 16살의 나는 생각도 못했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가,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의 모습, 감정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설레이고, 기쁜 일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어학원에 등록도 하고, 헬스장도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남보다 무엇을 더 가지겠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 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이름은 남이 불러주는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때 가 많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치중할 시간이 많았다면, 2007년도에는 자신에게 멋진 한해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남이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괜찮을걸~' 하고 웃을 수 있는 200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아! 2007년을 잘 부탁해-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업체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벽지, 장판, 페인트, 조명, 버티칼, 샷시, 마루공사, 화장실공사, 베란다 확장공사 등 가격에 자신있기에 무료 출장견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 호 : 대북 인테리어 하우스
- 대 표 : 유 병 호
- 주 소 : 포천시 선단동 82-14(☎031-542-8818)
- 홈 페이지 : www.daebokart.com
- 장안영업소 : 031-871-2002
- 경기상재 : 031-829-8901
- 방학영업소 : 02-954-1481
- 구리상재(주) : 031-529-5072~3

